

고등학생의 성별 · 우울수준과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and dep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김성란 · 박효인 · 송순**

익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코넬대학교 방문연구원 ·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전공교수

Kim, Seong Ran · Hyoin Park · Soon Song

Iksan City Transnational Marriage Family-Support Center · Visiting researcher Conell University ·
Faculty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research is find out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effects of this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on depression. The data were collected boys(108) and girls(120) second-grade high school students in Jeonbuk area and analyzed Independent-Sampl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in use of SPSS WIN 11.5 progra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1,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farther was that girls were higher in attitudinal independence than boys.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mother was that boys were higher in functional, emotional independence than girl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between boys and girls.
2. In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father and depression, girl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attitude independence and both of boys and girl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in conflictual independence. In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mother and depression, boy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in attitude independence and girl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in functional, attitudinal independence and both of boys and girl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in conflictual independence.
3.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father by the level of depression was related attitudinal, conflictual independence for girls and was related conflictual independence for boys.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mother by the level of depression was related functional, attitudinal, conflictual independence for girls and was related attitudinal, conflictual independence for boys. Finally, the more severe depression was related higher conflict independence from their parents.

Key Words : Psychological independence, High school students, Depression.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로써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적응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대인관계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기이며 교우관

계, 이성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독립욕구가 강해지므로 가족과의 갈등도 증폭될 수 있다. 겉으로는 독립을 주장하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걸 두려워하고 계속 아이로 머물고 싶은 유아기적 욕구가 존재한다. 그 외에도 자아정체감 형성, 성 욕구,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 학교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의 경험, 일탈행동에 대한 부모나 교

* 이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Wonkwang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06).

** Corresponding author: Soon Song
Tel: 063) 850-6653, Fax: 063) 850-6047
E-mail: ss6653@wonkwang.ac.kr

사의 과도한 질책 등의 여러 가지 좌절요인을 갖고 있다. 이런 좌절요인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충격적으로 맞게 되면 청소년들은 우울증을 나타낼 수 있다(권석만, 2000).

청소년기의 우울은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로서 슬픔이나 낙심 등이 성인처럼 나타나지 않고 우유부단, 집중력저하, 극심한 무력증, 권태감 등의 심리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피로감, 두통, 복통, 음주, 약물사용 등 신체증상과 행동 가출 비행 등 반사회적 행동 등의 다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신재은, 1999, 재인용). 숨겨진 우울을 방어하려는 노력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인생관 형성, 장래 생활 계획 등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청소년의 신경증을 이끄는 원인이 되고 부모 친구 교사와의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중 특히 부모와 관계의 비중이 크다(김혜정, 2001).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학생의 34.5%, 여학생의 47.5%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정도는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혜승, 2004 재인용).

2006년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서울대 병원이 6~17살의 소아·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우울증상 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소아·청소년들의 7.5%가 자신이 우울증이 있다고 답한 반면 부모들은 단 2%만이 자녀가 우울증이 있다고 답해 많은 부모가 자녀의 우울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우리나라 전국 남녀의 25.3%가 경증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14%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이상의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매일경제, 2003). 이 시기의 우울증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평생 그림자로 남을 수 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격형성기에 겪은 우울증은 자신감 결여로 이어져 성인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기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 과정에 대한 Bloss(1967)의 이론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Mahler, Pine과 Bergman(1975)의 유아심리 독립이론에 기초하여 Bloss(1979)는 첫 번째 분리-개별화를 성취한 아동이 청소년기에 도달했을 때 과거의 유아적인 대인관계로부터 독립하려는 새로운 변화를 다시 시도하게 되며 이러한 두 번째 분리-개별화 과정은 청소년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가는 과정(송명자, 1995)을 뜻하며 이 과정의 성공적인 해결은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해 결정적이다(Blos, 1979). 즉 지금까지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부모로부터 탈피하여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며(김진희, 1999) 이러한 청소년기의 가족 의존성의 분할(Shedding of

family dependencies)은 “유아기의 내면화된 대상으로부터의 정서적 이탈을 의미한다(Blos, 1979).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신의 독립성을 기르기 위하여 부모의 도움을 일단 부정하고 거부하려 들지만 아직 그들의 자아는 약하고 그들이 느끼는 새로운 충동과 공격성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과 우울, 격동 속에 빠져들기 쉽다. 청소년은 부모 대신에 대체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등 유아기적 부모와의 유대를 부정하면서도 이에 집착하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정경희, 2004). 즉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는 심리적 고통을 수반한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청소년은 부모 자신의 불안과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유아가 부모와 힘의 경쟁을 하듯이 이들도 힘의 줄다리기를 하게 되며 감정이 격하게 된다. 유아처럼 양가감정을 갖게 되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증오, 의존하고 싶은 욕구와 독립하고 싶은 욕구,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 겹치게 된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런 격동의 시기를 거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부모와 별개의 ‘내가 원하는 나’ 즉 완전한 하나의 개체로서의 나를 발견했을 때 두 번째의 분리-개별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Hoffman(1984)은 유아기의 분리 개별화 과정에 대한 Mahler(1975)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독립척도(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심리적 독립 과정은 다중 차원의 구인이며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갈등적 독립에 대한 자기 보고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FI)은 청소년이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처리할 줄 아는 행동적 독립이며 교우관계와 여가 및 일처리를 포함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반영한다.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AI)은 부모와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자아상인 자신의 신념, 가치, 태도에 대한 추구를 의미한다. 자기와 다른 사람의 정신적 표상에 대한 유아의 구별은 청소년기 동안에 청소년과 그들 부모간의 태도, 가치, 믿음의 구별에 반영될 수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유일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자신의 영상으로 정의되어 자신의 믿음, 가치, 태도를 갖게 된다.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EI)은 부모로부터의 인정, 친밀, 일체감 및 정서적 지지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 CI)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은 유아기 때의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갈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만큼이나 긍정적 감정 역시 반영될 수 있다.

PSI에 의해 측정된 심리적독립의 한 하위척도인 갈등적독립은 즉 부모와 갈등적 의존관계는 대학생들의 우울, 불안 대인문제, 학업, 신체적, 물질적 문제 등에 관련 있고 정적으로 상관되었다(Hoffman & Weiss, 1987; Lopez et al., 1986). Lopez 등(1986)과 Lapsley 등(1989)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높은 심리적 독립성을 나타낸다는 성차를 보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적독립과 적응에 관한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배제현, 1993; 정경희, 2004; 이해승, 2004)등이 있고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김은영, 1992)와 대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한미선, 1987; 정은희, 1993)와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송순 · 박효인, 2006)등이 있다. 이는 대부분이 후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독립과 정서적 적응에 직접 관련되는 우울증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울은 종종 미래가 불확실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이루고 부모로부터 독립은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서 이 두 변수 간에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독립이 우울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 고등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 가.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우울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가-1.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차이.
 - 가-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차이.
 - 가-3.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
- 나.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독립은 우울 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 나-1.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우울수준과의 관계.
 - 나-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우울수준과의 관계.
- 다. 고등학생의 우울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다-1. 고등학생의 우울 수준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차이.
 - 다-2. 고등학생의 우울수준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차이.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표집방법

본 연구는 2006년 12월 4일 ~ 12월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하는 N여자고등학교 2학년과 W고등학교 2학년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자 자신이 직접 기재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는 총 240부를 배부하여 240부(100%)를 전량 회수하였으나 회수된 자료 중 결과 처리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12부를 제외한 228부(95%)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108명(47.4%), 여학생 120명(52.6%)이다.

2) 척도

가. 심리적 독립수준척도

심리적 독립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제작한 심리적 독립척도 PSI(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송순 · 박효인(2005)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PSI는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기능적 독립(13문항), 태도적 독립(12문항), 정서적 독립(10문항), 갈등적 독립(20문항) 55문항을 어머니와 관계, 아버지와 관계에서 전체 110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척도 내용은 동일하며 설문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능적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실행할 줄 아는 개인적 능력이며, 태도적 독립은(Attitudinal Independence) 부모와 다른 독특한 자기 이미지와 자기 신념, 가치, 의견 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은 부모의 승인, 친밀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이며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적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이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Hoffman의 연구에서 PSI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84~.92로 보고하였으며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송순 · 박효인의 연구에서도 .73~.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76~.87 사이이었다.

나. 우울척도

우울증 척도(BDI)는 Beck 등(1967)이 개발한 것으로, 이 척도는 Beck이 자신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1961년에 제작한 것으로서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

은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및 태도의 범주로 구분되는 데 기분, 비관성, 실패감, 불만족감, 죄책감, 고통, 자기증오감, 자기체벌감, 울음, 불안전성, 사회적 위축, 우유부단성, 신체적 장애, 작업 장애, 수면장애, 피로, 식욕상실, 체중감소, 신체적 집착 등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척도의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이 척도의 점수에 대하여 Beck은 0~9점까지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까지는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까지는 중간 우울 상태, 그리고 24~63점까지는 심한 우울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하며 낮을수록 우울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척도는 지난 2주 동안의 자기 자신의 기분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고안 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김은정과 권정혜(1998)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 자료 분석은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값을 계산하였다.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에 대한 심리적독립 수준과 우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우울수준과 심리적독립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우울수준에 따른 부모에 대한 심리적독립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에 대한 심리적독립과 우울수준의 차이

고등학생의 심리적독립과 우울수준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가-1.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의 차이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 전체에 대한 결과는 남,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심리적독립의 하위 영역인 태도적 독립($t=2.05$,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학생이 태도적 독립의 차원에서 여학생보다 더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가-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독립의 차이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차이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독립 전체($t=3.83$,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영역인 기능적독립($t=4.50$, $p<.01$)과 정서적독립($t=6.54$,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능적독립, 정서적독립과 심리적독립 전체에서 더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 성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의 차이

N=228

하위변인	성별	N	M	SD	t	sig.
기능적독립	남	108	35.05	8.73	.653	.515
	여	120	34.30	8.53		
태도적독립	남	108	34.30	7.75	2.049*	.042
	여	120	32.25	7.33		
정서적독립	남	108	29.39	6.56	.693	.486
	여	120	30.05	7.54		
갈등적독립	남	108	55.97	11.55	.604	.546
	여	120	55.02	12.06		
심리적독립 전체	남	108	154.69	21.19	1.085	.278
	여	120	151.60	21.65		

* $p<.05$ ** $p<.01$ *** $p<.001$ (2-tailed)

<표 2> 성별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독립의 차이 N=228

하위변인	성별	N	M	SD	t	sig.
기능적독립	남	108	36.55	7.22	4.500***	.000
	여	120	41.01	7.69		
태도적독립	남	108	34.51	6.60	.212	.832
	여	120	34.70	6.86		
정서적독립	남	108	30.81	5.18	6.544***	.000
	여	120	35.62	5.84		
갈등적독립	남	108	58.33	10.48	.029	.977
	여	120	58.29	11.19		
심리적독립 전체	남	108	160.20	17.60	3.825***	.000
	여	120	169.63	19.42		

* p<.05 **p<.01 ***p<.001 (2-tailed)

<표 3>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 N=228

하위변인	성별	N	M	SD	t	sig.
우울	남	108	12.90	8.73	.418	.677
	여	120	12.43	8.39		

* p<.05 **p<.01 ***p<.001 (2-tailed)

<표 4>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전체=228명)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독립 전체
태도적독립	.617(***)				
정서적독립	.732(***)	.519(***)			
갈등적독립	-.067	-.235(***)	-.189(**)		
독립 전체	.825(***)	.642(***)	.705(***)	.379(***)	
우울	-.127	-.200(**)	-.113	.434(***)	.080

* p<.05 ** p<.01 *** p<.001 (2-tailed)

가-3.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아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나. 고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의 심리적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나-1. 고등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과 우울증과의 관계

고등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고등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 전체와 우울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영역인 태도적 독립차원에서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갈등적독립 차원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은 아래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갈등적독립의 차원에서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울이 심할수록 아버지와 관계에서 죄의식이나 불안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 6>과 같다. 여자 고등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하위영역인 태도적 독립차원에서는 부적상관을, 갈등적 독립차원에서는 우울과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우울이 심할수록 아버지와 다른 독특한 자기

<표 5> 남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108명)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독립전체
태도적독립	.682(***)				
정서적독립	.693(***)	.587(***)			
갈등적독립	-.095	-.269(**)	-.180		
독립전체	.823(***)	.680(***)	.711(***)	.353(***)	
우울	-.118	-.146	-.142	.470(***)	.110

* p<.05 ** p<.01 *** p<.001 (2-tailed)

<표 6> 여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120명)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독립전체
태도적독립	.554(**)				
정서적독립	.774(**)	.488(**)			
갈등적독립	-.046	-.221(*)	-.194(*)		
독립 전체	.827(**)	.604(**)	.712(**)	.397(**)	
우울	-.138	-.264(**)	-.088	.401(**)	.049

* p<.05 ** p<.01 *** p<.001 (2-tailed)

<표 7>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전체 228명)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독립 전체
태도적독립	.514(***)				
정서적독립	.678(***)	.422(***)			
갈등적독립	-.146(*)	-.121	-.027		
독립 전체	.719(***)	.626(***)	.724(***)	.457(***)	
우울	-.257(***)	-.195(**)	-.114	.460(***)	.052

* p<.05 ** p<.01 *** p<.001 (2-tailed)

이미지와 자기신념 가치 의견 등을 가질 수 없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죄의식이나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함과 관계있음을 의미한다.

나-2 고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우울과의 관계

고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에 대한 고등학생의 심리적독립 전체는 우울과는 상관이 없으나 하위영역인 기능적독립과 태도적독립은 부적상관이 있으며, 갈등적독립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심한 우울은 어머니의 도움없이 자신의 일을 실행할 줄 아는 개인적 능력이 부족하고 어머니와 다른 독특한 자기이미지와 자기신념, 가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와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적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가 미약하다.

어머니에 대한 남학생의 심리적독립과 우울과의 상관

관계는 아래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자고등학생은 태도적 독립 차원에서 우울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볼 수 있으며 갈등적독립 차원에서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다. 즉 우울이 심할수록 어머니와 다른 독특한 자기이미지와 신념 가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와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적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가 미약하다.

어머니에 대한 여학생의 심리적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여자고등학생은 우울과 심리적독립 전체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으나 각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데 기능적독립 차원과 태도적독립 차원에서는 부적상관, 갈등적독립 차원에서는 정적상관을 보인다. 즉, 우울이 심할수록 갈등감정에 얽매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며 자신만의 가치관과 태도나 믿음을 못 가지며, 어머니와 관계에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등 갈등감정에 얽매인다.

<표 8> 남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108명)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독립 전체
태도적독립	.525(***)				
정서적독립	.570(***)	.445(***)			
갈등적독립	-.121	-.124	-.097		
독립 전체	.703(***)	.648(***)	.637(***)	.471(***)	
우울	-.181	-.197(*)	-.135	.359(***)	.025

* p<.05 ** p<.01 *** p<.001 (2-tailed)

<표 9> 여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우울과의 상관관계(120명)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독립 전체
태도적독립	.538(***)				
정서적독립	.695(***)	.462(***)			
갈등적독립	-.175	-.118	.022		
독립 전체	.694(***)	.639(***)	.752(***)	.473(***)	
우울	-.329(***)	-.193(*)	-.094	.550(***)	.090

* p<.05 ** p<.01 *** p<.001 (2-tailed)

다. 고등학생의 우울수준에 따른 부모와 심리적 독립의 차이

우울수준에 따른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다-1 우울 수준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

우울수준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 전체와는 아래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래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수준은 고등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인 갈등적 독립(F=14.12, p<.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우울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한우울(D)과 정상(A)간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적 독립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며, 심한우울일 경우 부모와 관계에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우울 수준에 따른 남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남학생의 우울은 아버지에 대한 갈등적독립(F = 9.51,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우울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한우울(D)-중간우울(C) 집단과 가벼운 우울(B)-정상(A)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적 독립의 경향이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울이 심한 경우 청소년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적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심리적 독립에 대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학생의 우울과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는 아래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우울은 심리적독립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인 기능적독립(F=319, p<.05)과 태도적 독립(F=3.63, p<.05), 정서적독립(F=416, p<.01), 갈등적독립(F=5.88,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차이가 우울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독립(심한우울(D)-가벼운 우울(B))과 갈등적독립(심한우울(D)-정상(A))의 경우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독립의 경우 심한 우울인 경우가 가벼운 우울보다 아버지와 정서적 독립의 경향이 있으며, 그러나 정상인 경우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가벼운 우울보다 심리적 독립의 평균이 높은 특이한 사실을 보이고 있다. 즉 심한 우울은 아버지로부터 인정, 친밀, 일체감 및 정서적 지지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부터 자유롭고 정상인 경우도 아버지의 인정, 친밀 일체감 및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요구에서 비교적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갈등적독립의 경우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적 독립의 수치가 높아 우울이 심할수록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표 10> 우울수준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차이(전체 N=228)

하위변인	우울수준	N	M	SD	F sig.	Scheffe
기능적독립	정상(A)	90	35.56	7.49	.881 .451	
	가벼운우울(B)	68	34.70	8.18		
	중간우울(C)	48	33.08	9.91		
	심한우울(D)	22	34.27	11.0		
	전체	228	34.66	8.61		
태도적독립	정상(A)	90	34.38	6.49	2.296 .079	
	가벼운우울(B)	68	33.63	8.02		
	중간우울(C)	48	31.10	7.46		
	심한우울(D)	22	31.86	9.72		
	전체	228	33.22	7.58		
정서적독립	정상(A)	90	30.68	6.27	1.064 .365	
	가벼운우울(B)	68	28.82	6.43		
	중간우울(C)	48	29.10	8.15		
	심한우울(D)	22	30.09	9.35		
	전체	228	29.74	7.08		
갈등적독립	정상(A)	90	50.95	10.02	14.127*** .000	D>A
	가벼운우울(B)	68	54.75	12.02		
	중간우울(C)	48	60.85	9.60		
	심한우울(D)	22	64.45	13.20		
	전체	228	55.47	11.80		
심리적독립 전체	정상(A)	90	151.58	17.80	1.172 .321	
	가벼운우울(B)	68	151.83	22.49		
	중간우울(C)	48	154.12	23.76		
	심한우울(D)	22	160.63	25.93		
	전체	228	153.07	21.44		

* p<.05 **p<.01 ***p<.001

<표 11> 우울수준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독립의 차이(남자 N=108)

하위변인	우울수준	N	M	SD	F sig.	Scheffe
기능적 독립	정상(A)	37	34.13	7.53	1.231 .302	
	가벼운우울(B)	40	37.07	7.45		
	중간우울(C)	19	34.10	10.8		
	심한우울(D)	12	32.66	11.8		
	전체	108	35.05	8.73		
태도적 독립	정상(A)	37	34.05	7.03	1.841 .144	
	가벼운우울(B)	40	36.30	7.55		
	중간우울(C)	19	31.78	7.26		
	심한우울(D)	12	32.41	10.24		
	전체	108	34.30	7.75		
정서적 독립	정상(A)	37	29.10	5.93	.914 .914	
	가벼운우울(B)	40	30.05	5.72		
	중간우울(C)	19	30.26	8.06		
	심한우울(D)	12	26.75	8.38		
	전체	108	29.39	6.56		
갈등적 독립	정상(A)	37	51.56	10.23	9.513*** .000	D,C>B,A
	가벼운우울(B)	40	53.65	8.63		
	중간우울(C)	19	63.42	11.56		
	심한우울(D)	12	65.50	13.89		
	전체	108	55.97	11.55		
심리적 독립 전체	정상(A)	37	148.86	19.43	1.506 .217	
	가벼운우울(B)	40	157.00	16.52		
	중간우울(C)	19	159.57	28.01		
	심한우울(D)	12	157.25	26.44		
	전체	108	154.69	21.19		

* p<.05 **p<.01 ***p<.001

<표 12> 우울수준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차이(여자 N=120)

하위변인	우울수준	N	M	SD	F sig.	Scheffe
기능적독립	정상(A)	53	36.56	7.37	3.187* .026	
	가벼운우울(B)	28	31.32	8.11		
	중간우울(C)	29	32.41	9.38		
	심한우울(D)	10	36.20	10.17		
	전체	120	34.30	8.53		
태도적독립	정상(A)	53	34.62	6.14	3.626* .015	
	가벼운우울(B)	28	29.82	7.20		
	중간우울(C)	29	30.65	7.69		
	심한우울(D)	10	31.20	9.55		
	전체	120	32.25	7.33		
정서적독립	정상(A)	53	31.79	6.32	4.163** .008	D>B
	가벼운우울(B)	28	27.07	7.06		
	중간우울(C)	29	28.34	8.26		
	심한우울(D)	10	34.10	9.24		
	전체	120	30.05	7.54		
갈등적독립	정상(A)	53	50.52	9.94	5.880*** .001	D>A
	가벼운우울(B)	28	56.32	15.70		
	중간우울(C)	29	59.17	7.83		
	심한우울(D)	10	63.20	12.95		
	전체	120	55.02	12.06		
심리적독립 전체	정상(A)	53	153.49	16.49	2.481 .065	
	가벼운우울(B)	28	144.46	27.66		
	중간우울(C)	29	150.55	20.24		
	심한우울(D)	10	164.70	26.10		
	전체	120	151.60	21.65		

* p<.05 **p<.01 ***p<.001

다-2. 고등학생의 우울수준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차이(전체)

우울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전체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 수준은 전체 고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영역인 기능적독립(F=5.74, p<.01), 태도적독립(F=2.76, p<.05), 갈등적독립(F=16.92,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우울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능적독립(정상(A)-심한우울(D))과 갈등적독립(심한우울(D)-중간우울(C)-정상(A))의 경우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수준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독립은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기능적 독립의 수치가 낮아 우울이 심할 경우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일을 처리하거나 교우관계와 여가 및 일처리를 포함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갈등적독립의 경우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적 독립의 수치가 높으며, 고등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관계에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우울에 따른 어머니와 심리적 독립은 아래의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학생의 우울은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독립(F=3.90, p<.05)과 태도적 독립의 차원(F=2.99,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우울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갈등적 독립(심한우울(D)-정상(A))의 경우에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적 독립의 수치가 높아, 우울이 심할수록 어머니와 관계에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감정에 얽매이고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13> 우울수준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독립의 차이(전체 N=228)

하위변인	우울수준	N	M	SD	F sig.	Scheffe
기능적독립	정상(A)	90	41.17	6.87	5.739*** .001	A>D
	가벼운우울(B)	68	38.58	6.82		
	중간우울(C)	48	36.72	9.38		
	심한우울(D)	22	35.31	7.87		
	전체	228	38.90	7.78		
태도적독립	정상(A)	90	35.52	6.33	2.760* .043	
	가벼운우울(B)	68	35.35	6.38		
	중간우울(C)	48	33.00	6.98		
	심한우울(D)	22	32.18	7.93		
	전체	228	34.61	6.73		
정서적독립	정상(A)	90	34.17	5.97	1.033 .379	
	가벼운우울(B)	68	33.00	5.47		
	중간우울(C)	48	32.43	7.05		
	심한우울(D)	22	33.00	5.43		
	전체	228	33.34	6.03		
갈등적 독립	정상(A)	90	54.04	8.61	16.916*** .000	D>C>A
	가벼운우울(B)	68	57.77	10.85		
	중간우울(C)	48	62.10	9.89		
	심한우울(D)	22	69.13	11.23		
	전체	228	58.31	10.83		
심리적독립 전체	정상(A)	90	164.91	18.47	.442 .723	
	가벼운우울(B)	68	164.70	17.29		
	중간우울(C)	48	164.27	23.73		
	심한우울(D)	22	169.59	16.53		
	전체	228	165.16	19.13		

* p<.05 **p<.01 ***p<.001

<표 14> 우울수준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독립의 차이(남학생 N=108)

하위변인	우울수준	N	M	SD	F sig.	Scheffe
기능적독립	정상(A)	37	37.35	6.16	1.522 .213	
	가벼운우울(B)	40	37.42	6.91		
	중간우울(C)	19	35.47	8.99		
	심한우울(D)	12	32.91	7.76		
	전체	108	36.55	7.22		
태도적독립	정상(A)	37	35.32	5.46	2.985* .035	
	가벼운우울(B)	40	35.97	6.44		
	중간우울(C)	19	31.21	7.33		
	심한우울(D)	12	32.41	7.58		
	전체	108	34.51	6.60		
정서적독립	정상(A)	37	31.02	4.63	.195 .900	
	가벼운우울(B)	40	31.02	5.00		
	중간우울(C)	19	30.57	7.05		
	심한우울(D)	12	29.83	4.40		
	전체	108	30.81	5.18		
갈등적독립	정상(A)	37	55.97	8.04	3.907* .011	D>A,B
	가벼운우울(B)	40	57.02	9.99		
	중간우울(C)	19	60.42	12.23		
	심한우울(D)	12	66.66	12.22		
	전체	108	58.33	10.48		
심리적독립 전체	정상(A)	37	159.67	15.99	.231 .875	
	가벼운우울(B)	40	161.42	15.23		
	중간우울(C)	19	157.68	26.07		
	심한우울(D)	12	161.75	14.93		
	전체	108	160.20	17.60		

* p<.05 **p<.01 ***p<.001

<표 15> 우울수준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독립의 차이(여학생 N=120)

하위변인	우울수준	N	M	SD	F sig.	Scheffe
기능적독립	정상(A)	53	43.84	6.08	5.444** .002	
	가벼운우울(B)	28	40.25	6.45		
	중간우울(C)	29	37.55	9.70		
	심한우울(D)	10	38.20	7.34		
	전체	120	41.01	7.69		
태도적독립	정상(A)	53	35.66	6.92	.966 .411	
	가벼운우울(B)	28	34.46	6.30		
	중간우울(C)	29	34.17	6.60		
	심한우울(D)	10	31.90	8.74		
	전체	120	34.70	6.86		
정서적독립	정상(A)	53	36.37	5.84	1.558 .203	
	가벼운우울(B)	28	35.82	4.90		
	중간우울(C)	29	33.65	6.90		
	심한우울(D)	10	36.80	3.96		
	전체	120	35.62	5.84		
갈등적독립	정상(A)	53	52.69	8.81	15.534*** .000	D>C>A
	가벼운우울(B)	28	58.85	12.07		
	중간우울(C)	29	63.20	8.05		
	심한우울(D)	10	72.10	9.67		
	전체	120	58.29	11.19		
심리적독립 전체	정상(A)	53	168.56	19.33	.855 .467	
	가벼운우울(B)	28	169.39	19.19		
	중간우울(C)	29	168.58	21.44		
	심한우울(D)	10	179.00	13.59		
	전체	120	169.63	19.42		

* p<.05 **p<.01 ***p<.001

우울수준에 따른 여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독립은 <표 15>에 제시하였다. 여학생의 우울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독립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하위영역인 기능적독립(F=5.44, p<.01)과 갈등적독립(F=15.53, p<.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우울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갈등적독립(심한우울(D)-중간우울(C)-정상(A))의 경우에만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적 독립의 수치가 높아 우울이 심할수록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 감정에 얽매이고 자유롭지 않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고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우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부모와 심리적 독립은 우울수준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고등학생의 성별과 우울 수준에 따라 부모와 심리적 독립이 어떠한가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남학생은 아버지에 대해 태도적 독립에서 더 독립적이었으며 여학생은 어머니에 대해 심리적 독립 전체에서도 더 독립적이었고 특히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에서 남학생 보다 더 독립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독립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차원에서 남학생이 높았다(박현주, 2006)는 결과와 비교해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독립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은 부분 일치하나 남학생이 더 독립적이었던 점은 불일치한 결과이다. 한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송순·박효인(2005)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높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미선(1987)의 연구는 박현주(2006)의 결과와 일치하며 아버지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성차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지만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능적, 정서적, 갈등적, 태도적 측면에서 더 독립적이었다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는 불일치하며 송순·박효인(2005)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서 성차를 보이며 여대생은 정서적 독립이 남대생은 기능적 독립이 높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와 심리적 독립의 내용이 같은 내용은 아니어도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은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어느 한쪽과 더 많은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고 성별에 따라 심리적 독립의 내용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대상자들의 개인적,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를 반복하여 원인이나 경향을 아는 것은 자녀의 성장 발달과 독립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내용을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는 남아는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여아는 어머니를 동일시하며 성역할과 정체체감을 획득한다고 하는 외디프스-컴플렉스 이론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기의 부모-자녀의 의존관계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며 변화해가는 지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우울수준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신재은, 1999)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Compas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 우울 유병률은 성차가 유의하지 않거나 차이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났다(옥정, 1998, 재인용)는 연구와는 부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상반된 견해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며 좀 더 폭 넓은 이론의 고찰과 다양한 연구 대상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 독립과 우울수준과의 상관관계이다.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우울과 태도적 독립은 부적 관계, 우울과 갈등적독립은 정적관계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태도적 독립차원에서 부적상관을 보이고, 남·여학생 모두 갈등적 독립 차원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넷째,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독립과 우울수준과의 상관관계는 남학생은 태도적 독립과 여학생은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에서 부적상관을 보이고 남·여학생 모두 갈등적독립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도움 없이 일을 처리하는 행동적 독립이 높고 어머니와 다른 자기이미지와 신념 가치, 의견을 가

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관계에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 감정에 얽매이고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남·여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이 클수록 사회적 부적응을 겪는다고 보고한 Lopez(1986)와 한미선(1987)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와 갈등적 독립은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 감정에 얽매이고 자유롭지 않으며 관계를 명쾌하게 정의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응과 매우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Hoffman(1984)과 Lopez(1986)의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은 갈등적독립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와도 일치하였고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독립일 수록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부모의 가치관, 태도, 믿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태도를 구별하는 능력이 많고 부모로부터의 인정, 친밀, 일체감 및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우울수준에 따른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남학생의 경우 갈등적 독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심한우울 중간우울 집단과 가벼운 우울 정상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적 독립의 경향이 있으며 즉 우울이 심할수록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적의,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여학생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에서 우울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적 독립의 경우 심한 우울이 가벼운 우울보다 아버지로부터 인정, 친밀, 일체감 및 정서적 지지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부터 자유롭고 정상인 경우도 아버지로부터 인정, 친밀, 일체감 및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요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을 알 수 있었다. 갈등적 독립의 경우 우울이 심할수록 아버지와 갈등적 독립의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울이 심할수록 아버지와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적의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우울수준과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남학생의 경우 태도적 독립과 갈등적독립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갈등적 독립의 경우 심한우울과 정상 가벼운 우울 간에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심한 우울인 경우 어머니와 관계에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은 기능적독립과 갈등적독립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갈등적 독립의 경우에만 심한우울과 중간우울 정상 간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즉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관계에서 지나친 불안감, 불신감, 분노감,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학생은 정상일수록 태도적 독립의 경향이 있고 여학생은 정상일수록 어머니와 기능적 독립의 경향이 있으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남, 여학생 모두 심리적으로 건강할수록 갈등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우울이 심할수록 높은 갈등적독립 수준을 나타내어 부모와의 관계에서 죄책감이나 불신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우울은 부모와 갈등적 독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여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갈등적독립이 클수록 사회적 부적응을 겪는다고 보고한 Lopez(1986)와 한미선(1987)의 연구 결과에 대조해볼 때 우울 그 자체가 청년들의 사회적 부적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우울은 부모와 건강한 심리적 독립을 방해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 간의 비교는 대상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느정도 일관성 있는 결과들을 보인다는 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동시에 비교하여 연령에 따른 심리적 독립의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성별, 연령, 자아정체감, 양육방식과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수 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환경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와 심리적 독립이라는 제2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본 연구는 중소도시 한 지역의 남·여 고등학교 2학년이 국한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확대해석이 조심스럽다는 점과 둘째, 본 연구는 사회 인구학적, 심리학적인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성차분석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수 있는 제언은 우울한 학생들의 부모와 심리적 독립과 적응을 돕기 위한 배려와 노력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하고 적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와 특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 내외의 지원체계가 제공되고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주장하는 바이다.

주제어 : 심리적 독립, 우울 수준, 고등학생

참 고 문 헌

- 권석만(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 _____(2004). *현대이상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은영(199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권정혜(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7(1), 139-154.
- 김진희(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과 심리적 독립감 및 진로 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매일경제(2003). 4월 23일자.
- 맹영임(2001).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주(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 준비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제현(1993). 청소년기의 분리 개별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 순, 박효인(2006).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제3권2호*. 5-25.
- 신재은(199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옥 정(1997).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이미정(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학교상황과 청소년 우울증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호·송중용(1991). BDI, SDS, MMPI-D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 이혜승(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청소년학연구*. 11권(1), 421-441.
- 전성일 외(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행동장애에서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7(1).
- 정경희(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심리적독립 및 자아정체감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1993). 부모로부터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선(1987). 한국대학생의 심리적독립과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Blos, P.(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5, 162-185.

- Blos, P.(1979). *The adolescent passage*. NY: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Dashef, S.(1984). Aspects of identification and growth during late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8, 239-247.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Hoffman. J. A., & Weiss(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 Josselson, R.(1988). The Embedded Self : I and Thou Revisited. In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Lapsley, D. K., & Power, F. C. (Eds.), NY: Springer -Verlag, 91-106.
- Lapsley, D. K, Rice, K .G., Shadid, G. E(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 Lopes, F. G., Campbell, V .L. et al.(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52-56.
- Lopes, F. G., Campbell, V. V., & Watkins, C. E, J R(1988).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02-409.
- Mahler, M.,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Y : Basic Books
- Spitz, R. A.(1965). *The first Year of Life : A Psychoanalytic Study of Normal and Deviant Development of object Relations*.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Sullivan, K., & Sullivan, A.(1980). Adolescent - 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93-99.

(2008. 5. 9 접수; 2008. 7. 28 채택)